

?

도농교류사업이란 “도시인에게는 휴식과 휴양을 제공하고 농어민에게는 소득을 주는 사업”이다. 즉, 도시인과 농어민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농림수산물부가 정책을 집행하고 산하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도농교류사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WTO, DDA, FTA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시장이 세계에 개방됨으로써 각국의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과 경쟁하게 되어 자연히 농수산물가격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농어촌의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농어촌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촌 산업구조를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분야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통하여 농수산물직거래와 농어촌체험휴양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되찾는 있는 정책방안이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도농교류사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소비자(도시민)에 대한 홍보, 소비자 지원 촉진으로 구성되며, 각 유형 하부에 많은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면 체험휴양마을 육성을 위하여 보험지원, 마을운영에 대한 세무 및 마케팅 등 종합자문과 2년 주기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자(마을대표 및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도시민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매년 서울에서 여름휴가페스티벌(2012년 일산 킨텍스 6.28~7.1예정)을 개최하고, 상시 On-Line 홍보를 위하여 웰촌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지원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의 미래고객에 대한 농어촌유학 지원, 팜스쿨 지원, 외국인에게 홍보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Rural-20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농교류 협력사업(공모)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농어촌공사는 농림수산물부와 함께 다양한 도농교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본 사업이 이제 시작단계인 관계로 예산의 규모가 작다는 아쉬움이 있다.

도농교류협력사업은 여러 도농교류사업 중 하나의 분야이다. 도농교류협력사업은 여타 도농교류사업과 달리 역사가 긴 편이다. 즉 농어촌의 활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99년 농업인, 소비자, 정부가 합심하여 “농소정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08년에 현재의 도농교류

협력사업으로 명칭이 변경었다. 또한, 사업추진 방식도 공모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시행주체도 농협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바뀌게 되었다.

도농교류협력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 전년도 말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당해연도 1월경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승인하고 사업시행 공고를 하게 된다. 사업시행 공고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웰촌포털에 동시에 게시되며, 비영리 민간단체와 우수 체험마을 및 도시 초등학교는 도농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서 공모하게 된다.

심사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매년 평균 16억원 내외) 내에서 각 단체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특·광역시 소재 초등학교에 배정된다.

배정된 예산은 연중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연도 말에 집행된 내역을 정산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함으로써 완료된다.

연도별 추진현황 및 정량적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농교류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간 시행되었고 최근 5년간 추진 성과는 도농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횟수는 평균 1,057회, 도농교류 참여인원은 평균 13만3천명 수준이다. 신청 대비 선정된 평균 단체수 비율은 47.1%이며, 참여 단

체당 평균사업비는 45백만원 수준으로 지원되었다. 총 488개 단체가 신청하여 230개 단체를 선정(평균 45개 단체)·지원 (47.1%)하였다.

정성적인 효과로는 첫째, 도시소비자와 농어업인간의 유대관계강화 및 도시민의 휴양·휴식 욕구 충족이다. 둘째, 농어촌체험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를 통하여 우리농산물에 대한 신뢰감 구축과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가치 인식에 기여하였다. 셋째, 민간단체, 도시민, 농어업인의 교류와 농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본 사업은 도시 소비자에게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을 이해시키고 도시와 농어촌이 하나라는 공감대와 유대 강화를 위해 농어민, 소비자 및 정부가 함께하는 사업이다. 향후 도농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확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매년 사업효과 분석과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정책당국이나 국회 예산확보 시 정부예산이 투자될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야할 것이다.

FTA 확대 등으로 우리의 농산물이 세계의 농산물과 경쟁함으로써 감수할 수밖에 없는 농수산물 가격 인하와 그로 인한 농어업 소득의 감소를 도농교류라는 농어촌관광(3차 산업)을 농어촌에 도입함으로써 소득향상과 아울러 농어촌의 활력을 찾아 주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와 정책을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변할 수 없는 사명이며 목표가 될 것이다. 이것이 도농교류사업이 일회성의 정책이 아니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논거이다. 

▶ 연도별 예산 및 참여인원

	07	08	09	10	11		
	1,490	1,024	931	901	940	5,286	1,057
()	188	210	118	76	73	665	133
()	1,645	1,950	1,625	1,600	1,608	8,428	1,686



문대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도농교류2팀장
dgmoon@ekr.or.kr